

“원작소설과 영화,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요”

지난 2009년 영화인 조대영이 꾸린 '20세기소설영화독본'은 동서양 고전으로 꼽히는 소설을 2주간에 걸쳐 읽고, 원작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인문학적 사유를 공유하는 모임이다. 올해로 12주년을 맞은 이 모임에서는 그동안 '오만과 편견', '폭풍의 언덕',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등의 고전은 물론 '채널들, 자살하다', '협오스런 마츠코의 일생' 등 현대 소설까지 수많은 작품을 다뤄왔다.

'20세기소설영화독본'은 올 하반기에도 '동물농장', '노인과 바다', '마션'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첫 일정은 오는 21일 오후 7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시작되며, 모임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책을 읽은 후 모임 당일 참석하면 된다.

하반기 첫 작품은 허먼 멜빌이 쓴 '모비 딕'이다. 이 작품은 흰 고래 모비 딕과 그 고래에게 광기 어린 집착을 보이는 에이허브 선장의 이야기로 철학적 명상과 시적 환상, 그리고 기독교적 신앙과 이교도적인 신화가 함께 어우러진 고전이다. 이 원작을 영화로 만든 '백경'은 에이허브 선장 역의 그레고리 팩이 보여주는 전율적인 연기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8월 4일 두 번째 시간에 만나게 될 작품은 미셸 투르니에가 쓴 '마왕'이다. 미셸 투르니에는 유럽의 정신사를 대표하는 최고의 지성으로 평가받고 있는 작가로, 그의 두 번째 소설인 '마왕'은 신화와 상징을 통해 본질의 세계를 형이상학적으로 조명한 작품이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존 말코비치의 25시'는 주인공 아벨을 연기한 존 말코비치의 신들린 연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으로, 순진 무구한 프랑스 청년이 2차 세계대전의 격동에 휘말리는 과정을 서정적으로 묘사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8월18일 만날 수 있

'20세기소설영화독본' 하반기 프로그램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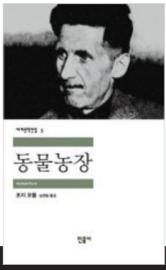
21일 '모비 딕' 첫 만남...광주극장 영화의 집 '적과 흑', '노인과 바다', '파리의 노트르담' 등



다. 조지 오웰이 1945년에 출간한 이 작품은 혁명이 변질돼 극단의 전체주의로 치달았던 스탈린의 소비에트연방에 직격탄을 날린 소설이다. 또한 소설은 단순히 소비에트연방에 대한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자유와 민주주의가 상실된 전체주의를 비판한다. 소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동물농장'은 영국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오웰의 원작이 지닌 분노와 연민과 풍자적 유머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9월 1일에는 비교적 최근작인 '마션'을 읽고 보게 된다. 앤디 위어의 데뷔 소설인 '마션'은 화성에 홀로 고립된 한 남자의 기상천외한 생존 모험을 그린다. 과학과 과학자의 생존감각과 작가의 유머러스한 입담이 어우러진 소설로, 출간 이듬해인 2015년 리들리 스콧 감독이 동명의 영화를 발표해 소설과 영화가 동시에 사랑받았다.

헤밍웨이에게 노벨문학상을 안겨준 '노인과 바다' (9월15일)도 프로그램에 포함됐다. 홀로 바다에 나가 거대한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는 노인의 이야기를 그린 이 작품은 삶과 죽음에 대한 작가의 고민과 인간의 굳은 의지를 담은 중편이다. 이



'ACC TEEN 여름방학 공공연수' 27~30일 무료 운영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과 미래산업을 접목한 직업군 탐색 교육이 방학기간에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아시아문화원(ACI)은 'ACC TEEN 여름방학 공공연수'를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무료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융복합 체험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만화영화 프듀서', '음향 설계사' 등 2개 과정이다.

'만화영화 프듀서'는 1인 미디어 창작시대를 맞아 애니메이션으로 나를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애니메이션 의미와 역사, 종류를 알아보는 이론부터 나만의 초간단 애니메이션을 기획하고

만들어보는 시간이다.

'음향 설계사'는 사운드디자인이라는 영역의 창작을 체험해보는 기회다. 기본적인 시퀀서 사용부터 샘플을 이용해 비트 메이킹 하는 과정까지 배워본다.

ACC 누리집에서 선착순 모집 중이며 각 과정별 모집 인원은 10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참조. 문의 062-601-475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를 영화화한 '노인과 바다'는 여러 편이 있는데, '20세기소설영화독본'은 남성적인 인간미가 넘쳤던 배우인 스펜서 트레이시가 연기한 '노인과 바다'를 선택했다.

이밖에도 스탕달의 '적과 흑', 빅토르 위고의 '파리의 노트르담', 에밀 졸라의 '테레즈 라캉' 등의 고전명작과 제임스 M. 케인의 '포스트맨은 벨을 두 번 울린다', 앤서니 버지스의 '시계태엽 오렌지', 파스칼 카나르의 '세상의 모든 아침' 등의 현대소설을 읽고 이들 원작을 영화로 만든 작품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

문의 010-4660-579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들려주고 싶은 '나의 노래'

뮤지컬단 '다락' 여섯번째 콘서트, 17~18일 북구문화센터



뮤지컬단 다락(대표 박수연·사진)은 광주·전남에서 활동하는 젊은 예술인들이 2013년 꾸린 뮤지컬 단체다. 이들은 뮤지컬을 연구, 창작하며 공연을 선보이는 팀으로 20여명의 단원들은 연출팀, 배우팀, 연주팀으로 나뉘어 활동중이다. 해마다 창작뮤지컬을 제작해 무대에 올리고 있으며, 정기공연, 기획공연,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다락이 이번에는 여섯번째 콘서트를 준비했다. '나의 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오는 17일 오후 7시, 18일 오후 5시 광주북구문화센터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박수연 대표가 기획했으며, 김세희가 연출을, 강한손이 안무를 맡았다. 뮤지컬 작품 중 '나'라는 주제를 갖고있는 남매들을 골라 '나의 꿈', '슬럼프', '이겨내는 힘'이라는 소주제로 무대를 꾸미며, 무대에 오르는 배우들이 들려주고

싶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기획했다.

첫 번째 '나의 꿈' 무대에서는 뮤지컬 '그날들' 중 '나의 노래'를 시작으로 '맘마미아' 중 '음악이 있음에 난 감사해요', '빌리 엘리어트' 중 '전설', '모차르트' 중 '나는나는 음악', '금발이 너무해' 중 '새로운 세상이 열리네'를 들려준다.

'슬럼프' 시간에는 '인더하이즈' 중 '숨을 쉬어', '레드북' 중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 '디어에반한센' 중 '창을 두드려, 손을 흔들어도'를 선보인다. 마지막 '이겨내는 힘'은 '맨오프라만차' 중 '이룰 수 없는 꿈', '디어에반한센' 중 '나로부터', '캐치미이프우렌' 중 '굿바이', '그날들' 중 '나의 노래'로 구성됐다.

무대에는 김다운·김을·정해건·김은실·정유정·김지영·성우람·박수근·최문준·한수민·이지현·장성하·임남엽 등이 오른다.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010-9699-5834. /전은재 기자 ej6621@

'삼국유사'와 민족신화의 이해

연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 16일 임재해 교수 강연

'삼국유사'는 민중사관의 사서로 신화와 전설, 민담 등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수록돼 있다. 특히 단군왕검에 관한 신화는 민족사의 뿌리이자 서사문학의 원형이며 흥익사상의 원천이다.

'삼국유사'를 다층적으로 알 수 있는 강좌가 마련됐다. 다양한 인문문화운동을 펼쳐오고 있는 연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순천시 중앙2길 11-19)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삼국유사"와 민족신화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연다. 강사는 임재해 안동대 명예교수이며 진행은 시집 '푸른 벽을 세우다'의 석연경 시인이 맡는다.

임재해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삼국유사'의 인

문학적 가치와 '삼국유사'에 수록된 단군신화를 비롯한 우리 민족신화의 구조적 성격과 의미를 새롭게 들려준다. 또한 단군신화에 나타난 상징과 민족신화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조명한 예정이다.

한편 임 교수는 국학연구원장을 비롯해 한국구비문학학회, 비교민속학회 등을 역임했으며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공동대표와 권경생어린이문화재단이사를 맡고 있다. 지금까지 '민속문화'를 읽는 열쇠, '민속문화의 생태학적 인식', '고조선문명고 신사문화' 등을 펴냈다.

문의 010-3638-638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